

<http://dx.doi.org/10.17703/JCCT.2023.9.3.305>

JCCT 2023-5-35

독서치유 수업사례 연구 -이청준의 「눈길」 중심으로-

A Case Study on the Bibliotherapy Class - Focusing on Lee Chung-joon's *Snowy Road* -

박해랑*

Hae Rang Park*

요약 본 연구는 이청준 소설 「눈길」을 통한 독서치유의 수업사례이다. 독서치유는 독서를 통한 동일화, 카타르시스, 표출, 통찰, 적용과정을 거쳐 진행된다. 연구를 통해 학생들은 소설 속 인물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자신의 상황과 비교해서 바라보게 된다. 학생들은 소설 속 인물의 상황을 평가하고, '내가 만약 소설 속 인물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통해 소설 속 인물의 다양한 삶의 입장을 경험하고, 자신은 그들의 삶과 다르게 살아갈 것이라는 자신의 의지를 표출한다. 그러면서 나와 부모님과의 관계를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는지, 있으면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감정과 문제의 상황을 살펴보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게 된다. 결국 독서를 통해 학생들의 상처 받은 감정은 일정부분 혹은 충분히 치유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독서치유의 방법이 좀더 구체화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감정, 독서치유, 동일화, 카타르시스, 표출, 통찰, 적용

Abstract This study is an example of a class of bibliotherapy through Lee Chung-joon's novel *Snowy Road*. Bibliotherapy proceeds through the process of identification, catharsis, expression, insight, and application through reading. Through research, students objectively examine the situation of the character in the novel and compare it with their own situation. Students evaluate the situation of the character in the novel, experience the various life positions of the character in the novel by answering "What would you do if I were a character in the novel," and express their willingness to live differently from their lives. At the same time, I look into my relationship with my parents and seriously think about whether there is a problem and how to solve it if there is one. Through this process, students specifically suggest ways to think about and solve their emotions and problems. In the end, students' hurt feelings can be partially or sufficiently healed through reading. Through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the method of bibliotherapy will be more concrete and develop in a positive direction.

Key words : Emotional, Bibliotherapy, Identification, Catharsis, Expression, Insight, Application

*정회원, 서원대학교 휴머니티교양대학 조교수 (제1저자)
접수일: 2023년 3월 30일, 수정완료일: 2023년 4월 14일
게재확정일: 2023년 5월 5일

Received: March 30, 2023 / Revised: April 14, 2023

Accepted: May 5, 2023

*Corresponding Author: phr2030@naver.com

Dept. of Advertising & PR, Seowon Univ, Korea

I. 서론

‘COVID-19’ 이후 현대인들은 다양한 방식의 삶을 추구하게 되었다.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삶의 변화는 결국 대면과 비대면이 혼용되고, 각 개인이 추구하는 다양한 방식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삶의 변화는 많은 현대인이 사회생활에서 혹은 관계에서 만족보다는 불만을 경험하게 하고, 다수가 개인적인 감정의 손상을 입기도 한다. 개인이 받은 감정적 손상은 개인을 사회관계에서 더욱 멀어지게 하기도 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현대인들은 자연 혹은 다양한 것으로부터 개인적인 힐링의 삶을 추구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개인이 받은 감정적 손상에 대한 다양한 치유 방법에서 독서를 통한 치유의 방법을 제안하고 이를 좀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독서를 통한 치유가 지속적으로 연구되었지만 그에 대한 내용적 측면에서 구체적이고 현실적 방법으로서의 발전은 미흡한 편이다. 일부 특정 학회의 연구를 제외하면 연구의 방향이 한정된 편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업사례를 통해 독서치유의 방법을 구체화하고 이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독서는 정보를 제공하고, 의사소통 행위로서 간접 경험을 제공한다. 독서는 읽기, 쓰기, 말하기, 사고하기까지 인간 행위의 근간을 이룬다. 인간은 독서를 통해 성장하고, 변화하기도 한다.

독서치료란 문학작품을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하여 사람의 정신적인 갈등이나 정서적 문제를 치유하는 것이다. 독서치료(bibliotherapy)란 용어는 책(biblion)과 치료(therapia)라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하였다. 치료(therapia)는 영어의 ‘cure’에 해당되는 말이지만 독서치료에서는 내용적으로 통찰력을 ‘계발하다(enlighten)’ 혹은 ‘육성하다(promote)’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즉 독서치료는 자기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인식과 통합의 요소를 담고 있는 것이다[1].

독서치료는 ‘책 읽기를 통해 사람의 마음을 치유한다’라는 일반적인 정의로부터 정신의학, 교육학, 상담학 등의 전문적인 영역에서 특수한 대상과 상황에 적용되는

세분화된 의미까지 다양하게 정의되어왔다.

독서를 통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감성적인 능력을 배양하고, 간접 경험을 통한 합리적인 판단력을 키우며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확장할 수 있다. 꾸준한 독서는 지속적인 자기계발을 가능하게 하고, 그들이 속한 사회 속에서 뛰어난 감성으로 변화하는 사회에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한다. 독서를 통한 개인의 성장은 무한한 것이다.

독서치료는 독서가 가진 영향력을 확장하여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방법이다. 독서치료는 책의 내용을 인지적으로 이해하고 지식을 습득하는 지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아픈 곳을 치유할 수 있도록 감성적이며 정서적인 반응에 초점을 둔다[2].

독서치료(bibliotherapy)라는 용어는 1916년 사무엘 크로더스(Samuel AcChord Crothers)가 처음 사용하였으며, 정신과 환자들을 중심으로 책을 선정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독서치료의 3대 원리는 동일시의 원리, 카타르시스의 원리, 통찰의 원리이다. 이 원리는 문학작품의 인물에 대한 동일시를 통해 역경을 극복하는 지혜를 배우고, 작품을 통찰한다. 작품의 전개나 인물의 역할과 대화를 통해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고 회복과 치유를 얻게 된다[3].

독서치료는 독자가 작품 속에서 동질감을 느끼고 감정이 이입되면서 카타르시스에 이르게 한다. 그러나 책 속의 등장인물과 상황이 독자 자신의 것은 아니기에 어느 정도의 거리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거리감은 독자로 하여금 객관적으로 상황을 인식하고 평가하여 문제해결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현대의 독서치료사나 독서상담자의 역할은 독서참여자와 독서자료를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며,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야기는 자신이 감추거나 내면 깊어 묻어둔 과거를 기억나게 하며, 그 기억을 새로운 시각으로 조망하고 사고방식을 변화시켜 문제해결에 도달하도록 도와준다. 즉, 독서치료는 독서참여자와 독서자료의 밀접한 상호작용, 즉 거리감과 유대감의 지속적인 작용 속에서 감정적 통찰에 이르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자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다[4].

독서치료는 자기실현(self-actualized)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며, 독서치료의 효과는 독서참여자의 동기와 의지에 많이 의존한다. 이러한 의미는 독서참여자 자신

이 독서치료의 주체가 되어 책과의 밀접한 상호작용을 통해 스스로 통찰력을 계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

나의 인생 이야기와 유사한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그 이야기에 몰입하고, 책 속의 고민과 갈등에 힘들어하고, 책 속의 결말에 진한 감동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독서치료의 시작이다. 우리는 허구의 소설 속 등장 인물에게 나와 같은 모습을 대면하면서 자기인지의 충격을 받게 된다. 독서치료는 이 충격에서 시작되고, 이 충격은 ‘아이코이아(ICOIA)’ 과정을 거친다. ‘아이코이아’란 다음과 같은 과정의 약칭이다[5].

- 1단계 - 동일화(Identification)
- 2단계 - 카타르시스(Catharsis)
- 3단계 - 표출하기(Output)
- 4단계 - 통찰(Insight)
- 5단계 - 적용(Application)

이청준 소설 「눈길」을 읽고 치유적 글쓰기와 토론을 진행한 수업사례를 연구하여 독서치유의 연구를 방향을 더욱 구체화하고 발전시키고자 한다.

III. 독서치유 수업사례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2021년 1학기, 하계방학, 2021년 2학기, 동계방학, 2022년 1학기, 하계방학, 2022년 2학기, 동계방학까지 총 8회에 걸쳐 ‘기초글쓰기 - 독서치유’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수업에 참여한 학생은 회차별 5-10명이며, 학년은 1, 2, 3, 4학년이 고르게 참여하였다. 학생들과 수업한 독서치유 글쓰기에 대한 연구이다. 독서치유에서 다양한 도서를 읽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매회마다 실시한 이청준의 「눈길」에 대한 치유적 독서와 글쓰기를 분석한다. 이청준의 「눈길」은 어머니와 아들 간의 감정과 그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의 단편소설이다. 어머니와 아들의 감정선이 내용에서 적절하게 표현되어있으며, 학생들이 수업 전에 읽고, 토론과 글쓰기에서 그 효과를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도서로 선정하였다.

연구자는 독서치유의 과정에 따라 다음의 구성으로 설계하였다.

- 동일화, 카타르시스, 표출 - 9문항
- 통찰 - 글쓰기
- 적용 - 5문항

글쓰기와 토론을 함께 진행했으며, 각 문항별 학생들의 글쓰기에서 상이한 점과 효과성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각 문항은 연구자가 치유를 위한 문항으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2. 분석결과

1) 동일화, 카타르시스, 표출

표 1. 동일화, 카타르시스, 표출 문항

Table 1. Question of Identification, Catharsis & Expression

3. 동일화, 카타르시스, 표출 - 이청준의 「눈길」(1977)을 읽고, 다음의 질문에 대해 글로 작성해보세요.	
①	소설 「눈길」의 내용을 정리해보세요.
②	아들의 입장에서 얘기해보세요.
③	어머니의 입장에서 얘기해보세요.
④	아들과 어머니 사이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⑤	아들과 어머니 사이의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⑥	아들과 어머니 사이의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⑦	내가 만약 아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⑧	내가 만약 어머니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⑨	작품 속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명대사, 장면, 사건 등) 그 이유도 얘기해보세요.

위 문항은 소설을 읽고, 이야기에서 등장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이를 표출하는 과정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②번 문항 ‘아들의 입장’에 대해 학생들 대부분의 대답은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한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도움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해 원망하는 마음이 클 것’이라고 하였다.

③번 문항 ‘어머니의 입장’에 대해 학생들의 대답은 다양하였다. ‘어머니가 도움을 주지 못해 미안할 것이다’, ‘아들의 행동에 어머니는 서운했을 것이다’, ‘아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못했을 것이다’, ‘아들이 대견하지만, 자신을 싫어한다는 것에 외로웠을 것이다’ 등 어머니의 입장에 대한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였다.

④번 문항 ‘아들과 어머니의 사이의 문제’에 대해 학생들은 ‘대화의 부족’, ‘표현의 부족’, ‘각자의 감정에만 몰입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 부족’, ‘자주 만나지 않아서’, ‘감

정적인 의견 차이’, ‘서로에게 무관심하고, 허울만 가족’ 등이라고 말하였다.

⑤번 문항 ‘아들과 어머니 사이의 문제 원인’에 대해 학생들은 ‘대화 단절의 시간이 너무 길어서’, ‘어린 시절의 가난’, ‘가난으로 인한 소통 부족’, ‘서로가 먼저 대화하려 하지 않고 오랜 기간 떨어져 지냄’, ‘서로에 대한 이해 부족’, ‘형이 남기고 간 빚 때문, 현실적인 문제’, ‘서로 간의 외면’ 등이라고 하였다.

⑥번 문항 ‘문제의 해결책’에 대해 대부분의 학생들은 ‘진솔한 대화가 필요’, ‘말이나 글로 표현’, ‘국가 지원 필요’ 등이라고 하였다.

⑦번 문항 ‘내가 만약 아들이라면’에 대해 학생들은 ‘소설 속 아들과 같을 것이다’, ‘어렸을 때는 어머니를 위로하고 옆에서 지켜줄 것 같고 어른이 되어서는 이야기도 해보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함께 해결하고 싶다’, ‘내가 아들이라면 자수성가한 이후에 부모님을 조금이라도 챙겨줬을 것 같다. 나는 효를 중시하기 때문에 아무리 부모에게 받은 것이 없어 억울하더라도 자식의 도리는 지킬 것 같다’,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자수성가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어머니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 대화를 시도해볼 것이다. 원망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외면한다고 마음의 짐이 사라지진 않기 때문이다’, ‘서로의 진심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갈등을 다 치유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오해는 풀 수 있을 것이기 때문’ 등으로 대답하였다.

⑧번 문항 ‘내가 만약 어머니라면’에 대해 학생들은 ‘아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에, 차라리 어딘가로 사라져 버렸으면 하고 느끼면서도 아들의 마음을 달래주려 했을 것’, ‘아들이 혼자 외로이 학창시절을 보낸 것에 대해 미안함을 표현하고 말 한마디라도 따듯하게 해 줬을 것’, ‘아들이 열심히 사는 모습을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고 응원해주며 계속 슬픔으로 나날을 보내지 않고, 작은 일이라도 하면서 돈을 모으도록 했을 것’, ‘아들에게 지원을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과 지원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을 이해해달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도하고, 아들의 어린 시절과 본인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싶다’, ‘내가 어머니였다면 책에서 나온 노모처럼 나올 것 같다. 아들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말하지도 못하고, 서운한 것을 티내는 것도 어려워할 것 같다. 그래도 아들에게 지붕개량사업은 분명하게 주장

했을 것 같다’, ‘금전적인 문제는 해결이 잘 안될 수도 있지만 다른 부분에서 일어나는 것은 해결해보고 아들을 챙겨줄 것 같다’ 등이다.

⑨번 문항에서 ‘작품 속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새벽에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걸어가고 어머니가 혼자 돌아오는 눈길’ 부분, ‘집이 팔렸지만 아들이 돌아오는 날 잠시 빌려서 하룻밤 묵었던’ 부분, ‘집이 팔려서 힘들었던’ 부분, ‘노인과 내가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서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분, ‘어머니가 ‘내 자식아, 내 자식아, 부디 몸이나 성히 지내거라. 부디부디 너라도 좋은 운 타서 복 받고 살거라’며 아들의 앞길을 빌었다’는 부분 등이다(표 1. 참조).

‘동일화, 카타르시스, 표출의 문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⑦번과 ⑧번 문항이다. ⑦번 문항 ‘내가 만약 아들이라면’에서 소설 속 아들은 어머니와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무심하게 지내다가 아내의 도움을 얻어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고 참회의 눈물을 흘린다. 아내가 없었더라면 아들은 영원히 어머니와 관계를 회복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학생들은 소설 속 아들의 입장이라면 그러한 문제를 어머니와 직접 해결하기 위해 애쓸 것이라는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결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⑧번 문항 ‘내가 만약 어머니라면’에서 학생들은 어머니의 처지에 공감하면서 아들에 대한 미안함을 가지고 나름의 삶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아들의 마음을 위로할 것이라고 하였다. 결국 학생들은 소설 속 아들과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 그들의 삶을 공감하지만 자신은 결코 그렇게 오랜 세월을 서로의 감정적인 문제로 두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한 것이다.

2) 통찰 - 글쓰기

이청준 소설 「눈길」의 끝부분은 어머니의 아들에 대한 깊은 사랑이 극적으로 표현되고, 아들은 어머니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소설의 대미이다. 이 부분에 대해 학생들의 느낀 점을 작성하도록 하였다(표 2. 참조).

표 2. 통찰 - 글쓰기
Table 2. Insight - Writing

4. 통찰- 소설 「눈길」(1977)의 끝부분입니다. 다음을 읽고 느낀 점을 작성해보세요.

학생들 작성한 느낀 점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글쓰기
 Table 3. Writing

1	아들을 향한 묵묵한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을 알게 된 아들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다.....
2	모자의 사이와 상황을 이렇게 만든 시대와 상황이 안쓰러웠고 , 아들을 걱정하고 미안해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져 슬퍼졌다. 또 통통부은 눈으로 마을로 들어갈 수 없었던 어머니의 마음에 너무나 공감이 되었다.....
3	처음에는 화자의 아내에게 말해주지 않을 거라는 듯 굴면서도 굶고 굶었던 말을 툭 뱉으면서 오해했던 지난날을 말하는 것에서 나는 여기서 어쩌면, 어머니가 사실 아들이 깨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4	아들은 어머니에게 일평생 진 빛이 없다고 생각했다. 마치 팔지 않은 집인 것처럼 밥을 먹이고, 잠을 채우고, 해가 뜨기 전에 돌려보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는 그저 하룻밤만이라도 미안함을 덜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였다. 나는 어머니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아들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빛'을 켜고, 미처 몰라서 느끼지 못했던 마음의 빛도 분명히 존재한다. 나는 작은 순간에도 배려를 해주는 장면들을 통해 무조건적인 사랑을 줄 수 있는 어머니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5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아들이 어머니의 속마음을 알게 되고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어느 정도 어릴 적 상처가 치유되어 보인다. 그리고 그 당시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미안한지 또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보여서 감정이입이 가장 잘된 부분이었다.....

학생들의 느낀 점은 모두 다양하지만, 공통된 점이 있다. 결국 어머니와 아들은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 서로의 상처받은 감정을 어느 정도 치유하게 된다는 것이다(표 3. 참조). 어머니의 아들에 대한 사랑이 확인되고 아들이 어머니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반성하는 부분이다. 어머니는 처음으로 아들에 대한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음으로 아들에 대한 깊은 사랑을 표현한 것이다. 이 부분에서 학생들은 감동을 느끼고, 어머니와 아들의 사랑을 확인하고, 며느리의 노력을 칭찬하게 된다. 학생들은 주체가 되어 등장인물들과 밀접한 상호작용을 통해 스스로 작품을 통찰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3) 적용 - 5문항

다음은 이청준 소설 「눈길」을 읽고, 나에게 적용해 보는 문항이다(표 4. 참조).

표 4. 적용 문항
 Table 4. Application Question

5. 적용 - 나와 부모님과과의 관계에 대한 다음의 질문에 글로 작성해보세요.	
①	나와 어머니와의 관계는 어떠한가요?
②	나와 아버지와의 관계는 어떠한가요?
③	나와 부모님(아버지, 어머니)과의 관계에서 문제는 무엇인가요?
④	나와 부모님과의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⑤	나와 부모님과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①번 문항 ‘나와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해 학생들은 ‘적당히 친밀하게 지내는 관계’, ‘친구 같은 관계’, ‘편한 관계’,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로 전화나 카톡을 하며 일상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관계’, ‘어머니는 나의 말을 들어주고 칭찬과 격려와 고민을 들어주는 친구 같은 관계이지만 내가 표현을 잘못하는 성격이라서 어머니에게 살갑게 대하고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관계’, ‘친구처럼은 아니더라도 어머니께서 나를 많이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등으로 표현하였다.

②번 문항 ‘나와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 학생들은 ‘나쁘지는 않지만 어렸을 때부터 과묵하셨던 분인지라 대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아버지가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 들어주는 관계’, ‘장난을 치는 남사친 또는 든든한 존재’, ‘아버지는 어머니보단 거리가 조금 있는 편이나 자연스럽게 대화한다. 성별이 달라 어머니와 대화하는 빈도보다는 훨씬 적은 편이지만 가끔 장난도 치는 좋은 관계’, ‘무소식이 희소식이란 말이 있듯이 연락을 자주 하는 편은 아니지만, 가끔 전화로 안부를 주고받는다. 같이 있을 때는 서로 장난도 많이 치는 친구같이 편한 사이’, ‘나의 고민을 들어주고 일상생활의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관계’ 등이다. 성별 차이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큰 차이점은 발견되지 않고, 대화의 정도가 조금 차이 날 뿐이다. 결국 부모님과는 잘 지내는 편이다.

③번 문항 ‘나와 부모님(아버지, 어머니)과의 관계에서 문제’에 대해 학생들은 ‘서로에 대한 이해 부족’, ‘딱히 문제가 되는 건 없는데 어머니가 조금 체념해서 사시는 것 같다’, ‘큰 문제는 아니지만 방 청소를 하지 않는다

고 잔소리를 종종 듣는 것’, ‘엄마는 개방적이고, 아빠는 보수적인 면이 있어서 나를 대할 때 의견이 좀 나뉘면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 ‘내가 평소 일상 이야기를 자주 안 하는 성격이다. 자취를 시작하고 요즘은 연락을 자주 드리려고 함’, ‘어머니는 나의 친구관계나 이성관계, 통금과 같은 사항에서 간섭이 심하셨고 화도 많아 싸우는 일이 종종 있다. 아버지는 칭찬을 잘해주지 않으셔서 서운했던 적이 있다. 어렸을 때 혼났던 일이 너무 많아 가끔 무서울 때가 있다’, ‘서로에게 무뚝뚝함’ 등이다. 큰 문제는 없지만 그렇다고 부모님과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전혀 없지는 않다. 부모님과과의 대화는 단절되기 쉽기에 같이 살면서 대화를 좀더 하도록 하고, 떨어져 지내면 자주 연락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학생들은 부모님과 잘 지내는 편이지만 부모님과과의 문제점도 정확히 알고 있으며, 이번 기회를 통해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알게 된다.

④번 문항 ‘문제의 원인’에 대해 학생들은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어머니의 상황과 감정에 배려하지 않고 앞뒤 없이 바로 통보하는 버릇과 어머니가 물어보면 그 물음을 회피하다가 잘 되면 그때서야 말하는 성격과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잔소리가 문제의 원인’, ‘부모님 간의 성격 차이’, ‘나의 게으름’, ‘의견 차이’, ‘대화 단절’, ‘가족이 모두 따로 살다 보니 자주 보지는 못하는 것’, ‘가치관 변화, 그와 관련한 소통의 부재’ 등이라고 하였다. 학생들은 부모님과과의 문제의 원인도 분명하게 알고 있다.

⑤번 문항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학생들은 ‘서로 다른 생각을 표현하고 대화하면서 서로 이해해 주는 것’, ‘어머니가 우려하는 일을 만들지 않는 것, 아버지와의 문제는 칭찬을 해주지 않아 서운한 것이니, 나도 먼저 아버지에게 칭찬을 해주는 것’, ‘가끔 집에 갈 때 꼭 함께 식사하기’, ‘서로 시간을 내서 본가에 자주 모이기’, ‘부모님께 잔소리 듣지 않게 행동하기’, ‘부모님 간의 이해가 우선’ 등이라고 한다. 학생들은 자신과 부모님 사이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잘 제시하고 있다.

IV. 결론 및 향후 과제

이 연구는 이청준 소설 「눈길」을 읽고 치유적 글쓰기와 토론을 진행한 수업사례에 대한 것이다. 학생들은 소설 속 인물의 행동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보고 평가하였다. 또한 ‘내가 만약 그 인물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

가’라는 질문에 답을 하면서 소설 속 주인공이 되어 문제의 해결 방법을 고민하고 제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독서를 통한 인물의 ‘동일화와 카타르시스, 표출’의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소설의 감동적인 부분에 대한 글쓰기를 진행하여, 자신의 감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소설을 ‘통찰’하게 된다. 소설과 연계하여 자신의 상황을 대입한 ‘적용’의 부분에서 자신 상황을 구체화하여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게 한다. 자신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이를 행동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고 발전시키게 한다.

독서를 통한 치유는 독서참여자와 독서자료의 밀접한 상호작용을 통해 그 유대감을 지속시키고, 감정적 통찰에 이르게 하여 독서참여자의 자아를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독서를 통해 참여자는 자기실현(self-actualized)을 할 수 있고, 자신의 의지를 충분히 표현하게 된다. 독서치료의 효과는 참여자가 주체가 되어 문제를 해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다.

현재 전 세계는 ‘COVID-19’ 이후 안전한 사회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 과연 현대인들의 정신적 감정적 상태는 어떠한지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 독서를 통한 건강하고 안정된 치유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이 연구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1] Won, Dongyeon, Yoo, Hyesook, Yoo, Dongjun, *Five-dimensional Bibliotherapy*, Kim young-sa, p.14, 2005.
- [2] Won, Dongyeon, Yoo, Hyesook, Yoo, Dongjun, *Five-dimensional Bibliotherapy*, Kim young-sa, p.15, 2005.
- [3] Choi, So Young, *Literary Therapy*, A quiet morning, pp.123-124, 2016.
- [4] Won, Dongyeon, Yoo, Hyesook, Yoo, Dongjun, *Five-dimensional Bibliotherapy*, Kim young-sa, p.16, 2005.
- [5] Won, Dongyeon, Yoo, Hyesook, Yoo, Dongjun, *Five-dimensional Bibliotherapy*, Kim young-sa, p.55-56, 2005.